

SEE-SAW	
참여 작가	조재영, 캐롤라인 왕(Caroline Wong)
전시 기간	2024 년 12 월 18 일 – 2025 년 2 월 8 일 (오프닝 리셉션 : 12 월 18 일)
장소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개관 시간	화-토 11:00 – 18:00 (일, 월 휴관)
주최, 주관	핼(FIM)

전시 내용

핼은 베를린의 소이 캐피탄(Soy Capitán) 갤러리와 협업하여 조재영과 캐롤라인 왕(Caroline Wong)의 2 인전 «SEE-SAW»를 선보인다. 관능적이고 과감한 여성상을 표현하는 캐롤라인 왕(b.1986)과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유연한 형태의 조각을 실험하는 조재영(b.1979)의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는 관람객에게 색채와 형태의 긴장감을 통해 인식 체계에 대한 다층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전시 서문

핼(FIM)은 베를린에 위치한 갤러리 소이 캐피탄(Soy Capitán)과 협업하여 전시 «SEE-SAW»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핼의 첫 해외 협력 프로젝트로, 캐롤라인 왕(Caroline Wong)과 조재영(Jaiyoung Cho)의 2 인전으로 구성되었다. 전시 제목인 ‘SEE-SAW’는 두 작가의 작업 방식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See’는 캐롤라인이 여성의 욕망과 쾌락을 응시하며 시각적 서사를 재구성하는 작업 과정을, ‘Saw’는 조각가로서 조재영이 형태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조형적 언어를 탐구하는 과정을 상징한다. 두 작가는 색채와 형태의 긴장감을 통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선사하며, 사회적 규범과 인식 체계에 대한 다층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한국에서 처음 전시를 선보이는 캐롤라인 왕은 동(남)아시아 여성, 특히 여성의 욕망과 권력을 주제로 작업해 왔다. 그녀의 작품 속 인물들은 실제 인물로, 작가와 모델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형성된다. 이들은 작가 자신의 아바타이자, 서구 문화에서 배제된 현대 아시아 여성들의 초상으로 읽힌다.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서술된 역사와 동양 회화에서 묘사된 순종적 여성성의 틀을 넘어, 캐롤라인은 관능적이고 과감한 표현을 통해 주체적인 여성상을 그린다.

작품 'Tea Party'(2023)는 기존의 전통적 동양화에서 보여준 세심한 윤곽선과 정돈된 공간에서의 우아하게 묘사되던 여성 이미지를 해체하고 전복한다. 흐트러진 차림의 인물들이 바닥에 앉아 음식을 먹고, 어지럽게 놓인 음식과 동물들이 어우러진 장면은 일상의 무질서와 엉뚱함을 강조하며, 사회적 규범을 비웃는 유머를 드러낸다. 특히 형광 색채의 파스텔을 활용해 즉흥적이고 촉각적인 질감을 강조하며, 전통적 여성성과 수동성에 대한 기대를 거부하는 강렬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작가가 꾸준히 탐구해 온 욕망과 탐욕이라는 주제와 맞닿아 있으며, 이러한 작가의 서사는 보는 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편적 이야기로 확장된다.

조재영은 일상의 사물에서 윤곽을 추출하고, 이를 물리적 형태로 구현하는 작업을 이어간다. 그는 전통적 조각이 지닌 영원성과 권위에 저항하며, 변화와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조형적 접근을 제시한다. 'Alice's Room'(2024)은 종이라는 재료를 통해 작품의 일시성과 유동성을 시각화한다. 작품은 공간을 점유하거나 고정된 형태로 머무는 대신, 축소와 확장을 반복하며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작품이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형태로 끊임없이 변모하는 특성을 강조한다.

최근 작가는 신체를 탐구하며 기하학적 구조와 신체 형상을 결합하여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결합은 개인의 정체성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재구성됨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Body Module'(2024)에서는 연결된 손의 조각이 공간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작품의 확장을 시도한다. 작업은 관람객에게 마치 하나의 생태계와 같이 타자와 환경 등 외부적 조건 속에서 구성되는 신체의 물리성을 환기시키고, 변화와 지속성을 동시에 체험하도록 유도한다.

«SEE-SAW»에서 두 작가는 전통적인 경계를 허물고, 독특한 방식으로 공간과 환경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과 새로운 재현 형태를 제시한다. 캐롤라인은 동아시아 여성들의 초상을 통해 전통적인 여성성의 한계를 넘어, 권력과 욕망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며, 조재영은 일상적 사물에서 추출한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는 유기적 조각을 통해 고정된 구조를 넘어선 예술적 접근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두 작가의 작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각이 교차하며 관람객에게 일상과 관계 맺는 사회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의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작품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의미를 발견하며 여성성과 신체와 같은 인식 체계, 사회적 규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작가 소개

캐롤라인 윙은 역사적 재현에서 배제되거나 제한적으로 그려졌던 동아시아 여성의 감각적인 삶과 욕망을 그려낸다. 여성의 인내심이나 올바른 행실을 강조하는 동양화적 관습과 달리 작가가 그리는 여성들은 기쁨과 탐욕에 충실하며, 관능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된다. 이러한 주제 의식은 또한 작가의 매체가 지닌 물질성에 의해 강화된다. 작가는 드로잉과 회화를 결합하고, 여성적 매체로 간주되는 소프트 파스텔과 형광 색채를 활용하면서 과장되고 활기찬 레이어로 가득한 화면을 만들어낸다. 작가에게 있어 순간의 쾌락을 음미하고 연장하는 예술적 행위는 세계를 감각적으로 살아내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빠르고 실용적인 삶에 대한 저항이 된다.

캐롤라인 왕(b.1986)은 말레이시아 이포(Ipoh)에서 태어나 영국 런던에 거주하며 활동한다. 작가는 영국 The Art Academy 에서 현대 초상화를 전공하고, 시티 앤 길드 오브 런던 아트 스쿨에서 순수미술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개인전으로 《Picnics and Parties》(Gallery Belenius, 스톡홀름, 2024), 《Eternal Summer》(Castello San Basilio, 피스티치, 이탈리아, 2021), 《A Many-Splendoured Thing》(Rusha & Co., 로스앤젤레스, 2023), 《Artificial Paradises》(Soho Revue, 런던, 2022), 《Cats and Girls》(Soy Capitán, 베를린, 2022) 등이 있으며, 참여한 단체전으로는 《Drawing Biennial 2024》(Drawing Room, 런던, 2024), 《Passage of Time》(Soy Capitán, 베를린, 2023), 《Contested Bodies》(Stanley & Audrey Burton Gallery, 리즈, 영국, 2023), 《Face to Face》(Gillian Jason Gallery, 런던, 2022), 《À la carte》(Tchotchke Gallery, 뉴욕, 2022)등이 있다.

조재영은 공간과 사물에 내재하는 질서를 조형적으로 번역하고 해체한다. 작가는 특히 사물과 오브제, 전체와 부분의 수직적인 위계를 뒤섞고, 일시적이거나 변화무쌍한 조각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이는 쉽게 자르고 붙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이라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종이는 무겁거나 영구적인 조각의 전통에 도전하면서 기능과 목적을 비워낸 껍데기로서 작가의 오브제를 완성시킨다. 이처럼 작가의 가변적인 조각은 상황과 유기적인 존재로서, 공간 안의 구조물과 신체가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무수한 관계 맺음을 가시화한다.

조재영(b.1979)은 이화여자대학교 조소전공 학사와 석사를 졸업 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예술 대학(HKU)에서 순수미술전공 석사를 취득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Body & Bodies》(CARVALHO PARK, 뉴욕, 2024), 《Cross Reaction》(Krognohuset, 룬드, 스웨덴, 2021), 《바디그라운드》(온수공간, 서울, 2020), 《Under the Paradise》(파라다이스 ZIP, 서울, 2017) 등이 있으며, 《파랑 파란 파도》(박태준 기념관, 부산, 2024), 《추상과 관객》(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24), 《작은 리듬이 있는 공간》(누크갤러리, 서울, 2024), 《할 수 없는 것을 뺀 나머지》(씨알컬렉티브, 서울, 2023), 《다른 곳》(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2020) 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공간 소개

작품으로의 완전한 몰입 상태, 'Free Immersion'을 의미하는 FIM 은 국내외의 역량 있는 젊은 미술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성장을 함께하며, 해외 갤러리 및 큐레이터와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할 것이다.

전경 및 대표작 이미지



전시 전경. 《SEE-SAW》, 2024

사진 이동웅, 이미지제공 FIM



전시 전경, 《SEE-SAW》, 2024

사진 이동웅, 이미지제공 FIM



전시 전경. 《SEE-SAW》, 2024

사진 이동웅, 이미지제공 **FIM**



전시 전경, 《SEE-SAW》, 2024

사진 이동웅, 이미지제공 FIM



캐롤라인 왕, *Party Slump 2*, 2024, oil, oil pastel and acrylic on canvas, 90 x 60 cm
사진 이동웅, 이미지 제공 FIM



조재영, *Body Module*, 2024, cardboard, contact paper, metal, paint, chain, object

62 x 24 x 20 cm (left)

118 x 24 x 27 cm (right)

사진 이동웅, 이미지 제공 **FIM**